

## 宋代 詩學 平淡論의 盛行 배경과 特色 연구\*

이 치 수\*\*

### <目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宋代 平淡論의 特色 |
| II. 宋代 詩學 平淡論의 盛行 배경 | V. 나가는 말       |
| III. 宋代 諸家の 平淡論      |                |

### I. 들어가는 말

중국의 고전시는 唐代를 거쳐 宋代에 이르면 唐詩와 또 다른 特色의 宋詩가 형성되는데, 여기에는 ‘平淡’을 시가의 이상적인 풍격과 境界로 여기고 이를 자각적으로 추구한 宋代 시인들의 의식과 생각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宋代에 이르면 중국적 特色이 농후한 詩學 이론인 平淡論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되고 ‘平淡’의 문제는 시의 창작, 비평, 감상의 주요 문제로 자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宋代의 詩와 宋代의 詩學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平淡論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宋代의 平淡論이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의해 제기되고, 앞시기와 비교해서 어떤 特色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되거나 유사한 기존의 연구로는 <中國 古典詩의 淡의 美學>, <中國古典詩歌에서 「平淡」의 意味解釋>, <송시 평담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2A01037564).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특징에 관한 고찰), 〈소식 시론의 ‘平淡’을 논함〉 정도가 있다. 첫 번째 글은 제목이 ‘中國 古典詩’이지만 실제로 논한 것은 선진에서 宋代까지의 ‘淡’의 미학의 연원과 발전을 다루었는데, 宋代의 ‘平淡’에 관해서는 극히 적은 부분을 할애하였다. 두 번째 글은 ‘平淡’의 의미를 주로 해석하였으며 宋代의 諸家の 平淡論과 宋代 平淡論의 특색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세 번째 글은 宋代 ‘平淡’의 시학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을 살피면서 梅堯臣과 蘇軾의 ‘平淡’을 다루었고, 네 번째 글은 蘇軾의 ‘平淡’을 논하였는데, 사실 宋代에는 梅堯臣과 蘇軾 외에도 여러 사람들, 이를테면 胡宿, 歐陽修, 黃庭堅, 吳可, 范溫, 葛立方, 朱熹, 周紫芝 등이 관련된 언급을 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平淡’의 측면에서 宋代 詩學의 특색을 전반적으로 폭넓게 논하는 작업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과 대만, 일본의 경우도 宋代를 논하더라도 梅堯臣이나 蘇軾, 黃庭堅 등, 소수의 몇몇 사람만 논하거나, 주로 北宋의 사람들을 논하고 南宋의 경우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거나 적고, 마땅히 다루어볼만한 사람 인데도 지나치기도 하며, 좀 더 폭넓게 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宋代 詩學과 詩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宋代의 詩學 이론 중 가장 대표적이고 주요한 개념 중의 하나인 이 平淡論이 어떻게 생겨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논의되었으며 그 특색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宋代 詩學 平淡論의 盛行 背景

宋代 詩學에서 ‘平淡’에 관련된 논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平淡論은 어떤 배경에서 생겨나 성행하게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宋代 以前の ‘淡’ 또는 ‘平淡’ 관련 論議

先秦 시대에는 아직 ‘平淡’이라는 말이 바로 쓰이지 않고 ‘淡’이란 말이 주로 思想을 논하는 경우에 쓰이게 되었다. ‘平淡’의 ‘淡’은 본래 중국의 철학, 특히 老子와 莊子の 철학사상에서 중요시하는 개념이었다. ‘淡’이란 말은 老子的 《道德經》에 제일 일찍 보인다. 대표적인 예의 하나인 제35장에서는 “道는 입으로 말하면 淡淡하여 아무런 맛이 없다.”<sup>1)</sup>라고 하였다. 음악과 맛 있는 음식은 길 가는 사람도 가던 발을 멈추게 만들지만, 道를 말로 나타내면 이와 달리 그저 담담할 뿐이어서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老子는 말했다. 그러나 이어서 말하길, 이것을 쓰고자 하면 아무리 써도 다함이 없다고 하였다. 여기서 老子는 道의 성격과 특색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道’는 老子 철학의 중심 개념으로서, 위의 말대로라면 道는 표면적으로 ‘無味’인 듯하나 실지로는 지극한 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제63장에서는 “無爲를 행하고, 無事를 일삼으며, 無味를 맛으로 삼는다.”<sup>2)</sup>고 하였다. 그러므로 老子가 보기에 道는 ‘淡乎無味’한 듯하지만 동시에 또 ‘無味の 味’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말은 후대의 平淡論 전개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莊子도 ‘淡’과 ‘恬淡’을 언급하였는데, 〈應帝王〉편에서 마음을 담담한 경지에서 노닐 것을 말하였고<sup>3)</sup>, 〈天道〉편에서는 “虛靜과 恬淡, 寂寞, 無爲는 萬物の 根本이다.”<sup>4)</sup>라고 하였다.

先秦 때 哲學 領域에서 거론되던 ‘淡’과 ‘恬淡’이 이후에는 인물의 才質 品評과 관련하여 쓰여지기 시작했다. 三國시대 魏나라의 劉劭는 《人物志》 〈九徵〉편에서 “무릇 사람의 재질과 度量은 中和가 가장 귀한데, 中和의

1) 陳鼓應 註譯, 《老子註譯及評介》, 中華書局, 2009, 196쪽. “道之出口, 淡乎其無味.”

2) 같은 책, 293쪽. “爲無爲, 事無事, 味無味.”

3) 黃錦鉉, 《新譯莊子讀本》, 三民書局, 1989, 120쪽. “遊心於淡.”

4) 같은 책, 169쪽. “夫虛靜恬淡寂寞無爲者, 萬物之本也.”

재질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平淡하며 아무런 맛이 없으므로 다섯 가지의 재질을 조화롭게 이루고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凡人之質量, 中和最貴矣. 中和之質必平淡無味, 故能調成五材, 變化應節)”<sup>5)</sup>고 말하였고, 또 〈體別〉편에서 中庸의 德은 “담백하지만 맛이 없는 것은 아니다.(淡而不醜)”라고 말하면서<sup>6)</sup> 儒家의 中庸와 道家의 平淡無味 사상을 결합하였다. 같은 魏나라의 阮籍은 〈樂論〉에서 “道德은 平淡하다.(道德平淡)”<sup>7)</sup>고 하면서 ‘平淡’이란 말을 사용하였고, 嵇康은 養生의 이치를 논하면서, “고요하고 담백함을 지극한 맛으로 삼으면 술이나 여색은 흠모할 게 못됩니다.(以恬澹爲至味, 則酒色不足飲也.)”<sup>8)</sup>(〈答向子期難養生論〉)라고 하여 ‘恬澹’을 ‘至味’와 결부시켜 말했다.

先秦 이후, 哲學과 인물의 재질 품평에서 거론되던 ‘平淡’이 南北朝 시기에 이르면 이제 文藝의 영역에서도 쓰여지기 시작했다. 劉勰은 《文心雕龍》에서 ‘淡’과 ‘澹’을 몇 군데서 언급했다. 〈通變〉편에서 역대의 작품들을 시대별로 살펴면서, 옛날 黃帝와 唐堯 때의 작품은 순후하면서 질박하였으나, 그 이후 여러 시대를 거쳐 劉宋 초기는 그릇되며 신기함을 추구한다고 評을 내린 다음, “질박함에서 시작하여 그릇됨에 이르기까지 시대가 가까워질수록 맛이 더욱 없어졌다.(從質及訛, 彌近彌淡.)”고 말하면서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sup>9)</sup> 〈時序〉편에서는 魏明帝가 즉위한 이후에 正始 연간의 玄學 풍조가 여전히 남아있어 작품의 풍격은 ‘가볍고 담백했다(輕澹)’고 평했다.<sup>10)</sup> 그런데 劉勰은 ‘淡’과 ‘澹’을 부정적으로만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時序〉편에서, 簡文帝 때에는 ‘담박한 생각과 濃密한 문채(澹思濃

5) 馬駿麒·朱建華, 《人物志全譯》, 貴州人民出版社, 2009, 2쪽.

6) 같은 책, 15쪽. “夫中庸之德, ……淡而不醜.”

7) 嚴可均 校輯, 《全上古三代秦漢三國六朝文》(二), 中文出版社, 1975, 1313쪽.

8) 같은 책, 1327쪽.

9) 王運熙、周鋒, 《文心雕龍譯注》, 上海古籍出版社, 2000, 270쪽. “權而論之, 則黃唐淳而質, 虞夏質而辨, 商周麗而雅, 楚漢侈而艷, 魏晉淺而綺, 宋初訛而新. 從質及訛, 彌近彌淡.”

10) 같은 책, 405쪽. “至明帝纂戎, ……于時正始余風, 篇體輕澹.”

采)가 때때로 文壇에 뿌려졌다고 평했다.<sup>11)</sup> 劉勰은 작품의 표현이 淡泊無味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작가의 사상과 생각이 淡泊한 것은 굳이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다.

鍾嶸은 《詩品·序》에서 黃老思想을 노래한 永嘉 시기의 시가 “담담하니 맛이 적다.(淡乎寡味)”고 비판하면서 郭璞이 아름다운 文彩로 永嘉 연간의 平淡한 詩體를 변화시킨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sup>12)</sup> ‘鍾嶸은 ‘滋味’와 ‘味’를 말했지만 이것을 바로 ‘平淡’과 연결시키지는 않았다.

平淡論 논의는 唐代에 들어서도 계속 되었다. 皎然是 詩論에서 ‘言外の 맛’, ‘文外之旨’를 추구하면서, 詩語가 담담하면 별 맛이 없다(淡而無味)고 느낄 수도 있다고 하였다.<sup>13)</sup> 皎然은 情感과 興趣를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 韻律과 文采를 고루 갖추어야 시에 깊은 맛이 생긴다고 보았다.<sup>14)</sup>

晩唐에 이르러 司空圖는 《二十四詩品》에서 24種의 風格을 논하면서 두 번째로 ‘冲淡’에 대해 언급하였다. 첫 부분에서, 고상하고 虛靜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천지의 조화로운 기운을 접하는 시인의 修養態度를 말하고, 이어서 시인이 유유자적하며 경험하는 虛靜의 경계를 한 폭의 그림으로 보여주었으며, 끝으로 이런 시인에 의해 지어진 작품이 淡淡한 맛을 지니고 있음을 말하였다.<sup>15)</sup> 또 ‘綺麗’에서는 “濃艷함이 다하면 반드시 枯渴되고, 淡淡한 것은 언제나 심후하네.(濃盡必枯, 淡者屢深.)”라고 하여 淡淡한 것이 깊은 詩味가 있음을 말했다.<sup>16)</sup> 司空圖는 ‘맛 밖의 맛(味外之旨)’, ‘韻致 밖의 운치(韻外之致)’를 중시했는데<sup>17)</sup> ‘淡’과의 관련성에 주목했다. 그

11) 같은 책, 407쪽. “簡文勃興, ……澹思濃采, 時酒文圍.”

12) 何文煥, 《歷代詩話》上, 中華書局, 2001, 12쪽. “晉弘農太守郭璞, ……文體相輝, 彪炳可玩, 始變永嘉平淡之體, 故稱中興第一.”

13) 李壯鷹, 《詩式校注》, 人民文學出版社, 2003, 153쪽. “抑由情在言外, 故其辭似淡而無味.”

14) 같은 책, 209쪽, 《詩議》. “夫詩工創心, 以情爲地, 以興爲經, 然後清音韻其風律, 麗句曾其文采. 如楊林積翠之下, 翹楚幽花, 時時間發. 乃知斯文, 味益深矣.”

15) 何文煥, 앞의 책, 38쪽. “素處以默, 妙機其微. 飲之太和, 獨鶴與飛. 猶之惠風, 荏苒在衣. 閱音修篁, 美曰載歸. 遇之匪深, 卽之愈希. 脫有形似, 握手已違.”

16) 같은 책, 40쪽.

의 ‘味外之旨’說은 ‘味外之味’를 추구하는 宋代의 ‘平淡論’과 통하는 바가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先秦 시대에서 三國시대까지는 대체로 ‘淡’이란 말로 주로 思想을 논하고 人物을 평하다가, 南北朝에 이르러 비로소 詩를 논하는 데에 쓰이기 시작했으며, 唐에 들어서는 詩歌의 표현 문제 등과 관련하여 ‘淡’과 ‘平淡’을 주목하였는데, 이들의 논의는 후대에도 계속된 平淡論의 전개에 상당한 기초가 되었다.

## 2. 宋代 詩學 平淡論의 盛行 背景

宋代에 오면 이제 平淡論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는데, 송대 시학 平淡論의 성행 배경 요인으로는 前代의 平淡論 외에도, 당시의 철학사상이 詩人들의 意識과 精神, 특히 詩學觀에 미친 영향, 詩壇의 폐단을 바로 잡으려는 생각, 그리고 理想的인 境地, 또는 境界의 追求 및 이상적인 학습 대상으로서의 詩人 摸索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1) 儒佛道 三教 融合과 詩學觀의 변화

五代十國의 혼란기를 마무리한 宋代에는 통치자들이 崇文抑武의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교육을 중시하여 학교를 세우고 典籍을 수집 정리하며 文官 制度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宋代의 문화가 발전하고 흥성하는 데에 좋은 사회 환경이 마련되었다. 철학 사상의 방면에서는 儒佛道 三教가 融合 발전하면서 宋代의 문학과 예술 창작, 史書 편찬, 그리고 사회생활 등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儒學은 宋代에 이르러 人格의 완성과 心性의 修養을

17) 祖保天·陶禮天, 《司空表聖詩文集箋校》, 安徽大學出版社, 2002, 193-194쪽, 〈與李生論詩書〉. “淺近하면서도 浮薄하지 않고, 심원하면서도 다 말해버리지 않는 다음에야 韻致 밖의 운치(韻外之致)를 말할 수 있다.(近而不浮, 遠而不盡, 然後可言韻外之致耳).” 194쪽. “만약 온전한 아름다움으로 뛰어나게 되면 맛 밖의 맛(味外之旨)을 알게 될 것이다.(倘復以全美爲工, 卽知味外之旨矣.)”

중요하게 여겼는데, 사대부와 문인들은 虛靜 공부를 중시하며 心性의 평화를 추구하는 理學에 道家의 冲淡과 禪宗의 清寂을 결합하여 자기 내면을 다스렸다. 內面的 省察을 통해 心性을 수양하여 고상한 인격을 추구하는 것이 보편적인 時代思潮 속에서 ‘平淡’이 宋代의 士인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적인 境界가 되어, 문학뿐만 아니라 예술에도 영향을 미쳤다. 書藝와 繪畫가 意趣의 表現을 중시하며 淡泊과 平遠을 추구했으며, 문학의 경우에도 理學家의 대표인 朱熹가 ‘글이란 모두 道 가운데에서 흘러 나오는 것이다.(文皆是從道中流出)’<sup>18)</sup>라고 말했듯이 修養을 강조하고, 이런 수양으로부터 나오는 ‘平淡’을 중시했는데, 이것은 인격 정신의 진실되고 자연스러운 流露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생각은 시를 지을 때의 詩學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平淡’을 추구하게 되었다. 분방한 감정의 표출을 특색으로 하는 唐詩와 달리 意趣의 淡淡한 表達을 중시하는 ‘尚意’의 詩學, ‘平淡’의 詩學으로 변화를 보이면서 송대의 詩는 澹泊 平靜의 경향을 보였다.<sup>19)</sup> 宋代의 시인들은 ‘平淡’을 이상적인 境界요 추구해야 하는 풍격으로 여기면서 실제 창작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반영하고자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이러한 宋代의 사상적 문화적 배경의 영향이라 말할 수 있다.

## 2) 詩壇의 弊端 革新과 ‘平淡’ 重視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宋代 詩學에서 平淡論이 중요한 하나의 原論으로서 논의된 데에만 그치지 않고, 동시에 詩壇의 狀況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제기되었다는 점이니, 바로 詩壇의 弊端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에서 ‘平淡’을 제기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의 하나는 바로 北宋 中期의 詩歌革新運動이다. 北宋의 초기의 시단에는 唐末 五代의 시풍을 그대로 계승하였는데, 白體와 晚唐體는 각기 내용에 그다지 깊이가 없거나, 체제와 제재가 협소한 폐단을 드러내었으며, 西崑體는 浮艷

18) 黎靖德 編, 《朱子語類》 卷8, 中華書局, 2018, 3305쪽.

19) 李致洙, 〈宋代 詩學論의 배경과 특색 연구〉, 《中國語文學》 第55輯, 2010, 154-155쪽 참조.

한 형식주의에 빠졌다. 이에 시단에는 詩歌革新運動이 일어났다. 우선 道學家 石介가 楊億의 西崑體에 대해 景物을 아름답게 꾸미고 吟風弄月하면서 聖人の 道를 해친다고 공격하였다. 그러나 柳開, 石介, 穆修, 孫復 등의 시는 風潮를 바꾸는 데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도리어 險怪奇澀한 太學體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이어서 歐陽修와 梅堯臣, 蘇舜欽 등에 의하여 晚唐五代의 시풍과 西崑體 末流를 대상으로 하는 詩歌 改革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歐陽修는 과거시험을 주관하는 知貢舉가 되자 당시 유행하던 太學體를 과거시험에서 逐出하였으며, 西崑體의 시가 典故를 너무 많이 써서 말이 怪僻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駢단을 지적하였다. 梅堯臣은 詩歌 혁신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平淡’을 통하여 浮艷한 시풍을 바로잡고자 하였으며, 歐陽修와 蘇舜欽도 梅堯臣과 생각을 같이하였다. 이들은 平淡, 古淡한 경지를 추구하였는데, 이 운동은 이후의 송시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으며, 여기서 제기된 ‘平淡論’과 ‘平淡’의 추구는 이후의 宋代 시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歐陽修 등의 시가혁신운동 이후 시단에는 王安石, 蘇軾, 黃庭堅 등이 활약을 하였는데, 이 중에서도 黃庭堅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여 江西詩派가 시단에서 힘을 발휘하였다. 그런데 이 江西詩派의 末流는 지나치게 奇特한 표현을 추구하고 시구를 雕琢하는 데에 빠지면서 駢단을 드러내자 ‘平淡’을 제시하며 이를 통하여 이런 駢단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葛立方과 朱熹가 바로 이러하였다. 北宋 末에서 南宋 初期의 葛立方은 《韻語陽秋》에서 陶淵明과 謝朓의 시를 아주 높이 평가하면서 이들의 시는 “모두 平淡하고 생각과 意趣가 있어, 후대의 시인으로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눈을 傷하게 雕琢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皆平淡有思致, 非後來詩人忧心劇目瑠瑠者所爲也.)”<sup>20)</sup>라고 말했다. 그가 ‘平淡’과 ‘思致’를 강조하는 것은 江西詩派가 화려한 형식에 치중하면서 내용을 소홀히 하는 駢단을 바로잡으려는 데에 있다. 朱熹 또한

20) 吳文治, 앞의 책, 第8冊, 8198쪽.

平淡을 중시하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當時 詩壇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江西詩派의 末流가 ‘미친 듯 괴이하게 아로새기며 귀신의 머리에 귀신의 얼굴을 하고’ ‘살찌고 기름지며 누린내가 나고 시고 짜고 쓰고 뚫은 것’을 추구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sup>21)</sup> 陸游 역시 만년에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雕琢에 치중하고 奇險한 데에 빠졌다고 비판하였다.<sup>22)</sup>

歐陽修 등이 주도한 詩文革新運動은 時代의 요구에 따라 일어난 것이며, 이 革新運動에서 ‘平易’가 제시되고 ‘平淡’이 중시되었다. 그 이후에도 詩壇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할 때 다시 시인들에 의해 ‘平淡論’이 제기되었다.

### 3) 詩歌의 理想的 境界 追求와 陶淵明 推仰

歐陽修와 梅堯臣, 그리고 蘇舜欽 등이 詩文革新運動을 일으킨 뒤, 북송 중기의 蘇軾과 黃庭堅은 문학에 대해서 좀 더 자각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경지로 ‘平淡’을 다시금 확인하였으며, 더불어 학습의 典範으로 삼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는데 앞 시기 시인들서부터 추구해온 ‘平淡’ 풍격과 딱 맞는 사람은 바로 陶淵明이었다. 蘇軾은 〈與子由書〉에서 이러한 특색을 갖춘 시인으로 陶淵明을 높이 치며, “陶淵明은 시를 지은 것이 많지 않으나, 그의 시는 질박하면서도 실은 아름답고, 말랐으면서도 실은 살찌 있다. 曹植, 劉楨, 鮑照, 謝靈運, 李白, 杜甫 등의 여러 시인들이 모두 그에 미치지 못한다.”<sup>23)</sup>고 극찬하였다. 이 이후로 宋代의 시인들은 平淡 풍격의 대표적 본보기로 陶淵明의 시를 추앙하였으며, 六朝 시대에는 그렇게 중시를 많이 받지 못하던 陶淵明이 宋代에 이르러 비로소 새롭게 높이 평가받는 변화가 일어나게

21) 같은 책, 第6册, 6131쪽. 《朱文公文集》 卷64, 〈答鞏仲至〉. “夫古人之詩, 本豈有意於平淡哉? 但對今之狂怪雕鏤神頭鬼面, 則見其平, 對今之肥膩腥臊酸鹹苦澀, 則見其淡耳.”

22) 같은 책, 第6册, 5868쪽. 《劍南詩稿》 卷78, 〈讀近人詩〉. “雕琢自是文章病, 奇險尤傷氣骨多.”

23) 孔凡禮 點校, 《蘇軾文集》 第6册, 中華書局, 2004, 2515쪽, 〈與子由書〉. “淵明作詩不多, 然其詩質而實綺, 癯而實腴, 自曹劉鮑謝李杜諸人, 皆莫及也.”

되었다. 그리하여 宋代에는 陶淵明의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따라서 陶淵明의 시를 논하고, 陶淵明의 시를 배우고, 陶淵明의 시에 화답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 陸游는 “시를 배우려면 마땅히 陶淵明을 배워야 한다.(學詩當學陶)”<sup>24)</sup>고 주장했다. 宋代에 平淡論이 盛行한 배경 중의 하나는 바로 陶淵明의 시를 ‘平淡’한 시의 典範으로 삼고 따라서 그를 추앙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한 가지 언급하고 지나가야 할 것은 바로 宋代의 사람들이 陶淵明을 좋아한 것은 단지 그의 시 뿐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蘇軾이 자신은 단지 陶淵明의 시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그의 사람됨에 진실로 감동함이 있다<sup>25)</sup>고 말한 것과 같이, 宋代의 사람들은 陶淵明의 人品과 그의 ‘平淡’한 시의 성취를 하나로 결합하여 가장 이상적인 시인으로 그를 추앙하고 그의 시를 공부하였다. 宋代에 平淡論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擧論되고 盛行하게 된 것은 위에서 살핀 몇 가지 사항이 결합되어 그 배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Ⅲ. 宋代 諸家の 平淡論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배경 속에서 ‘平淡’과 관련된 논의는 宋代에 이르러서 詩學史上 처음으로 비로소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宋代 詩學의 주요 문제의 하나로 자리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비교적 주목을 끄는 견해를 피력한 北宋의 胡宿, 梅堯臣, 歐陽修, 蘇軾, 黃庭堅, 그리고 南宋의 葛立方, 朱熹 등 몇 사람의 ‘平淡’과 관련된 주요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24) 吳文治, 앞의 책, 第6冊, 5866쪽. 《劍南詩稿》卷70, 〈自勉〉.

25) 孔凡禮, 앞의 책, 第6冊, 2515쪽, 〈與子由書〉. “然吾於淵明, 豈獨好其詩也, 如其爲人, 實有感焉.”

## 1. 北宋

## 1) 胡宿

胡宿은 仁宗朝에 활동한 後西崑體의 시인이다. ‘後西崑體’라는 명칭으로 짐작할 수 있듯이 胡宿은 艷麗한 시를 지향하는 ‘西崑體’를 계승한 면도 있지만, 동시에 ‘西崑體’의 일반적인 경향을 오로지 그대로 따르지만은 않고 달리 새로운 변화를 꾀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平淡’을 높이 평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太傅致仕鄧國公張公行狀>에서 張士遜의 시를 평하면서 “峻整하고 ‘平淡’하며 두 체제에 통함이 있다.(峻整平淡, 通有二體.)”고 하였으며,<sup>26)</sup> <讀僧長吉詩>에서는 僧侶 長吉에 대해 “시를 삼백 편 지었는데 ‘平淡’하기가 古樂과 같습니다.(作詩三百篇, 平淡猶古樂.)” “天質이 자연스럽게 아름다워, 和氏의 옥과도 같습니다.(天質自然美, 亦如和氏璞.)”라고 평하면서 ‘平淡’ 시풍을 아주 높이 稱頌했다.<sup>27)</sup> 宋代 시학에서 ‘平淡’을 비교적 일찍 이야기한 사람으로는 일반적으로 梅堯臣을 지칭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胡宿이 <讀僧長吉詩>에서 ‘平淡猶古樂’이란 평을 하였는데 사실 梅堯臣도 <和綺翁遊齊山寺次其韻>에서 ‘重以平淡若古樂’이라 말하여<sup>28)</sup> 두 사람 모두 ‘平淡함이 古樂과 같다’는 평을 한 바 있다. 이 두 시의 창작 시기는 연구에 의하면, 梅堯臣의 詩는 景祐 5년(1038), 그가 37歲 때 지어졌으며, 胡宿의 <讀僧長吉詩>는 언제 지어졌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長吉이 梵才大師로 일컬어지는 天聖 7년(1029) 이전에 지어졌을 것으로 보여진다.<sup>29)</sup> 이것에 따르면 ‘平淡’을 긍정적으로 평하면서 제기한 것은 胡宿이 梅堯臣보다 먼저이었으며 두 사람 모두 ‘平淡’에 관해 같은 생각을 가졌음

26) 吳文治, 앞의 책, 第1冊, 127쪽. <文恭集> 卷40.

27) 같은 책, 第1冊, 126쪽. <文恭集> 卷1.

28) 朱東潤 編年校注, <梅堯臣集編年校注> 上, 上海古籍出版社, 2006, 115쪽.

29) 段莉萍, <论北宋诗人胡宿的“平淡”诗观>, <重庆三峡学院学报> 第4期, 2012, 60쪽.

을 알 수 있다. 胡宿의 ‘平淡’에 대한 긍정은 濃麗한 西崑體를 완전히 따르지 않고 不滿을 갖고 새로운 경계를 추구하는 의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전하는 胡宿의 시를 보면 數量上으로는 西崑體 작품이 많지만, 〈怨詩楚調示龐主簿及鄧治中〉시와 같이 西崑體 시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五言古詩 속에서 淡泊한 筆致로 情趣를 나타내는 시도 지었다.<sup>30)</sup> 이런 점에서 胡宿은 前期의 西崑體에 불만을 갖고 平淡한 시풍으로 그것을 대체하고자 새로운 변화의 시도를 꾀하면서 歐陽修와 梅堯臣, 蘇舜欽 등이 詩文革新運動을 일으키며 ‘平淡’ 詩論을 본격적으로 강하게 주장한 宋代 詩風의 交替期, 過渡期에 ‘平淡’을 이들보다 앞서 환기시킨 사람 중의 하나라고 평할 수 있다.

## 2) 梅堯臣

梅堯臣은 ‘平淡’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詩歌 創作에서도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였는데 이 점은 분명 胡宿이 미치지 못하는 바이다.

梅堯臣은 〈答裴送序意〉에서 “어찌 唐末의 두 세 시인이 區區한 사물의 형상에 세월을 소모하는 것을 배울 것 있겠습니까?(安取唐季二三子, 區區物象磨窮年.)”<sup>31)</sup>라고 하며 唐末의 시인들을 비판하였는데,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形式과 技巧에만 치우치는 西崑體의 浮艷한 폐단을 바로잡고자 하였으며 梅堯臣이 제기하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平淡’이다. 그는 “詩는 본래 情性を 말하는 것이니, 그 소리를 크게 낼 필요가 없다네.(詩本道情性, 不須大厥聲)”(〈答中道小疾見寄〉)<sup>32)</sup>라고 말하면서. “그리하여 情性に 맞도록 시를 읊조리며, 조금은 ‘平淡’에 이르고자 합니다.(因吟適情性, 稍欲到平淡.)”〈依韻和晏相公〉<sup>33)</sup>라고 하여 실제 작품에서도 ‘平淡’을

30) 傅璇琮 等 主編, 《全宋詩》 第4冊, 北京大學出版社, 1991, 2052쪽.

31) 朱東潤, 앞의 책, 中, 300쪽.

32) 같은 책, 293쪽.

33) 같은 책, 368쪽.

목표로 삼아 그러한 시를 指向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平淡’한 시란 어떠한가와 관련하여 梅堯臣은 林逋의 詩에 대해 “그가 사물을 따라 情을 즐기며 詩를 지으니, 平澹하면서 깊고 아름다워 그의 시를 읽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일을 잊게 만든다.(其順物玩情爲之詩, 則平澹邃美, 讀之令人忘百事也.)”(《林和靖先生詩集序》)<sup>34)</sup>라고 평하면서, 林逋가 文辭의 修飾에만 힘쓰지 않고 ‘사물을 따라 정을 즐기며 詩를 지으며’, 그의 詩가 ‘平澹하면서 깊고 아름다운’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또 歐陽修에 의하면 梅堯臣이 “古淡한 가운데 참맛[眞味]”이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는데<sup>35)</sup>, ‘平淡’이나 ‘古淡’이 그저 平庸, 淡薄, 無味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 깊고 아름다운 眞味が 있다는 특징을 지적하였다.

梅堯臣은 〈讀邵不疑學士詩卷杜挺之忽來因出示之且伏高致軀畫一時之語以奉呈〉에서 “詩를 지움에 옛날과 지금이 없고, 오직 ‘平淡’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네.(作詩無古今, 唯造平淡難)”<sup>36)</sup>라고 심사를 밝힌 바 있다. ‘平淡’과 관련된 그의 이러한 생각과 노력은 後日 宋代의 平淡論 전개와 宋詩의 特色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할 수 없다.

### 3) 歐陽修

歐陽修는 ‘平淡’에 대해 좀 더 여러 면에서 고찰하면서 이를 널리 제창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는 《六一詩話》에서 당시 詩壇에서 西崑體를 본받는 사람들이 典故를 많이 써서 말이 괴벽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자 老선생들이 이런 폐단을 우려하였다고 지적하면서<sup>37)</sup> ‘平淡’을 중시하게 되었다.

34) 같은 책, 下, 1150쪽.

35) 洪本健 校箋 《歐陽修詩文集校箋》 上, 上海古籍出版社, 2009, 139쪽, 〈再和聖俞見答〉. “子言古淡有眞味.”

36) 朱東潤, 앞의 책, 下, 845쪽.

37) 吳文治, 앞의 책, 第1冊, 217쪽, 《六一詩話》. “楊大年與錢劉數公唱和, 自西崑集出, 時人爭效之, 詩體一變, 而老先生輩, 患其多用故事, 至於語僻難曉, 殊

歐陽修는 梅堯臣의 시를 평하면서 그의 ‘古淡’이 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苦心에서 나왔고,<sup>38)</sup> 그의 ‘閑淡’이 깊이 생각하고 정교하게 시를 짓는 데서 나왔음을 지적하면서 ‘平淡’詩의 創作을 논했다.<sup>39)</sup>

歐陽修는 또 梅堯臣의 古硬한 詩를 읽다보면 처음에는 橄欖을 먹는 것 같이 맛이 좀 쓰고 뚝지만 참맛[眞味]은 오래 갈수록 더욱더 존재한다고 높이 평하면서 ‘平淡’과 鑑賞의 문제, ‘平淡’과 ‘味’의 관계를 주목했다.<sup>40)</sup>

歐陽修는 北宋 初期 詩壇의 弊端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에서 ‘平淡’을 제기하면서, ‘平淡’類의 詩의 創作과 鑑賞 등 여러 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以後의 宋代 平淡論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데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 4) 蘇軾

蘇軾 이전에 梅堯臣과 歐陽修, 두 사람 모두 ‘平淡’을 이상적인 경지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담긴 ‘참맛(眞味)’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주었다. 그러면 이 ‘참맛’은 과연 어떤 것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蘇軾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고찰을 하면서 견해를 제시하였다.

우선 蘇軾은 “무릇 글을 지음에 젊었을 때는 마땅히 氣象이 뛰어나고 五色이 燦爛하여야 하며, 점차 늙어갈수록 점차 숙련되면서 이에 ‘平淡’을 이룬다. 사실은 ‘平淡’이 아니라 燦爛함의 극치이다.(凡文字, 少小時須令氣象崢嶸, 五色絢爛, 漸老漸熟, 乃造平淡, 其實不是平淡, 絢爛之極也.)”(〈與二郎姪〉)<sup>41)</sup>라고 하였는데, 南宋의 周紫芝는 《竹坡詩話》에서 말하길, 이러한 것은 文章을 짓는 것 뿐만 아니라 詩를 짓는 사람도 더욱 마땅히 이

不知自是學者之弊。”

38) 같은 책, 第1冊, 212쪽, 《六一詩話》. “聖俞平生苦於吟詠, 以閑遠古淡爲意.”

39) 같은 책, 第1冊, 215쪽, 《六一詩話》. “聖俞覃思精微, 以深遠閑淡爲意.”

40) 洪本健, 앞의 책, 上, 46쪽, 〈水谷夜行寄子美聖俞〉. “近詩尤古硬, 咀嚼苦難嚼. 初如食橄欖, 眞味久愈在.”

41) 孔凡禮, 앞의 책, 第6冊, 2523쪽.

말을 배워야 된다고 말했다.<sup>42)</sup> 이 인용문에서 蘇軾은 ‘平淡’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이야기하였다.

蘇軾은 ‘平淡’을 詩文의 가장 이상적인 最高의 경지라고 여겼다. 그리고 이 ‘平淡’은 단순한 平易 淡淡이 아니고 오히려 ‘燦爛함의 극치’라고 보았다. 이것은 技巧의 鍛煉을 전혀 무시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修練과 노력의 결과이며, ‘燦爛함’의 공부를 거치고 ‘燦爛함’을 바탕으로 하여 점점 더 老熟해지면서 이르는 경지이다.

그러면 이러한 경지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陶淵明과 柳宗元의 시를 논하면서 “枯澹함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겉은 말랐지만 속은 기름지고, 담박한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아름다운 것을 말함이니, 陶淵明과 柳宗元의 경우가 바로 이렇하다. 만약에 속과 겉이 모두 마르고 담박하다면, 어찌 말할 가치가 있겠는가?”(〈評韓柳詩〉)<sup>43)</sup>라고 말하면서, 겉으로는 담박하게 보이지만 내면에는 지극한 맛을 지닌 시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를 가장 잘 지은 시인으로 陶淵明을 들면서 그의 시는 질박하면서도 사실은 아름답고, 말랐으면서도 사실은 기름진데, 曹植·劉楨·鮑照·謝靈運·李白·杜甫 등 여러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극찬하였다.(〈與子由書〉)<sup>44)</sup>

### 5) 黃庭堅

黃庭堅은 ‘平淡’의 표현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그의 ‘平淡論은 ‘詩法’과 관련을 갖는 데에 특색이 있으니, 〈答何靜翁書〉에서는 “보내오신 시는 醇淡하면서 句法이 있습니다.(所寄詩, 醇淡而有句法.)”<sup>45)</sup>라고 평하여

42) 吳文治, 앞의 책, 第3冊, 52829쪽. “余以不但爲文, 作詩者尤當取法於此.”

43) 孔凡禮, 앞의 책, 第5冊, 2109-2110쪽. “所貴乎枯澹者, 謂其外枯而中膏, 似澹而實美, 淵明子厚之流是也. 若中邊皆枯澹, 亦何足道.”

44) 같은 책, 第6冊, 2515쪽, 〈與子由書〉. “吾於詩人, 無所甚好, 獨好淵明之詩. 淵明作詩不多, 然其詩質而實綺, 癯而實腴. 自曹劉鮑謝李杜諸人, 皆莫及也.”

45) 吳文治, 앞의 책, 第2冊, 942쪽.

何靜翁의 시가 ‘醇淡’과 ‘句法’, 둘 다 겸하여 가지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黃庭堅은 또 〈與王觀復書〉에서 杜甫가 夔州에 간 이후에 지은 시들이 ‘句法이 간결하고 평이하면서 큰 工巧로움이 나오고, 平淡하지만 산 높고 물 깊은 경지이니, 하고자 하여도 미칠 수 없는 듯하다.’고 높이 평했다.<sup>46)</sup> 黃庭堅이 ‘醇淡’, ‘平淡’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無味の 淡’이 아니라 높은 산과 깊은 물과도 같은 ‘味’를 숨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주목을 끄는 것은, 黃庭堅 이전에 ‘平淡’을 주장한 사람들은 대부분 陶淵明을 그 대표적인 시인으로 드는데, 黃庭堅은 杜甫를 들었으니 이것은 이전의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다. 黃庭堅 또한 陶淵明의 詩를 높이 推仰하면서 그의 詩 또한 杜甫의 夔州 이후의 詩처럼 “번거롭게 먹줄을 치고 깎아 다듬지 않아도 저절로 부합한다.(不煩繩削而自合)”(〈題意可詩後〉)고 높게 평했다.<sup>47)</sup> 그러나 실제 창작에서 黃庭堅은 杜甫 詩를 典範으로 삼으면서 ‘平淡’과 ‘法度’의 조화로운 결합을 꾀했다. 黃庭堅은 紹聖 元年(1094년)을 기점으로 하여 전기에는 시를 지을 적에 새롭고 기묘한 것을 추구하였지만 후기에 들면서 ‘平淡’을 더 주목하고 이를 추구하였다.

## 2. 南宋

### 1) 葛立方

葛立方 또한 胡宿과 梅堯臣 以來 많은 사람들이 ‘平淡’을 중시하는 풍조 속에서 ‘平淡’을 대단히 중시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이에 대해 논했다.

우선, 그는 ‘平淡’이 拙劣하고 쉬운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지금 사람들은 拙劣하고平易한 말을 많이들 짓고는 스스로 ‘平淡’하다고 여기고 있으니, 識者들은 이를 보고 즐도하지 않을 수 없다

46) 같은 책, 第2册, 943쪽. “但觀杜子美到夔州後古律詩, 使得句法簡易而大巧出焉. 平淡而山水高深, 似欲不可企及.”

47) 같은 책, 第2册, 948쪽. “至於淵明, 則所謂「不煩繩削而自合」.”

고 꼬집었다.<sup>48)</sup>

또 葛立方은 ‘平淡’한 시의 창작과 관련하여, ‘平淡’에 이르고자하면 마땅히 華美한 가운데서 와서 그 화려하고 향기 나는 것을 떨쳐버려야 하며 그런 뒤에야 ‘平淡’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sup>49)</sup> 그리고 陶淵明과 謝朓의 詩를 例로 들면서 詩란 平淡하면서 情趣가 담겨져 있어야 됨을 강조했다.<sup>50)</sup>

그는 또 李白의 “맑은 물에서 연꽃이 솟아나오니, 타고난 그대로의 모습은 꾸밈을 버렸네.(清水出芙蓉, 天然去雕飾)”라는 시구를 들면서 詩는 平淡하면서 天然스러운 경지에 이르러야 훌륭하다고 말했다.<sup>51)</sup>

葛立方은 《韻語陽秋》에서 진정한 ‘平淡’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 ‘平淡’의 성격, ‘平淡’한 시를 짓는 방법과 주의할 점, ‘平淡’의 境界 등에 대해 두루 언급하였다. 그리고 ‘平淡’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당시의 江西詩派 末流가 너무 奇異함을 추구하며 詩句를 雕琢하는 폐단을 비판했다.<sup>52)</sup>

## 2) 朱熹

宋代에는 文學家 뿐만 아니라 理學家들도 ‘平淡’에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朱熹가 대표적인 例이다.

朱熹는 詩를 評하거나 논하면서 ‘平淡’ 또는 ‘平易’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여 “陶淵明의 詩를 사람들은 모두 ‘平淡’하다고 말한다.” “韓愈의 시는 ‘平易’하다.” “시는 모름지기 ‘平易’하고 힘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

48) 같은 책, 第8冊, 8198쪽. “今之人多作拙易語, 而自以爲平淡, 識者未嘗不絕倒也.”

49) 같은 책, 第8冊, 8198쪽. “大抵欲造平淡, 當自粗麗中來, 落去華芬, 然後可以造平淡之境.”

50) 같은 책, 第8冊, 8198-8199쪽. “陶潛謝朓詩皆平淡有思致.”

51) 같은 책, 第8冊, 8198-8199쪽. “李白云: ‘清水出芙蓉, 天然去雕飾.’ 平淡而到天然處, 則善矣.”

52) 앞의 8쪽 참고.

다.<sup>53)</sup> 그러나 ‘平易’와 ‘平淡’을 말한다고 해서 실제 창작에서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 되는 대로 지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가 말하길, 글을 지을 때, “새롭고 교묘한 것은 쉽게 지을 수 있지만 平淡하고자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그 새롭고 교묘한 것을 돌려보내야 하며, 그런 뒤에 平淡에 이를 수 있다.”<sup>54)</sup>고 하였는데, 새롭고 교묘한 것은 시를 지을 때도 반드시 거쳐야하는 하나의 과정이지만 최종적으로는 ‘平淡’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보았다. 形式이나 技巧, 修辭 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精練을 거쳐 質樸한 平淡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다.

朱熹는 또 ‘平淡’은 시인의 생각과 감정의 자연스러운 流露이며, ‘平淡’을 의식적으로 억지로 하려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朱熹는 또 平淡한 가운데에 깊은 뜻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것을 강조했으며 바로 이 점에서 梅堯臣의 시를 평하면서 그의 시는 平淡한 것이 아니고 僻僻 마른 것이라고 평했다.<sup>55)</sup>

#### IV. 宋代 平淡論의 특색

위에서 대표적인 몇 사람을 중심으로 宋代 諸家の 平淡論을 살펴보았다. 宋代 平淡論의 주요 내용은 대체로, ‘平淡’의 성격과 특징, ‘平淡’의 창작, ‘平淡’의 감상, ‘平淡’의 審美的 理想과 대표 詩人, 平淡論의 時代性 등이며, 以前 시기의 平淡論보다 훨씬 다양하고 심도 있는 특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면, 宋代 사람들은 儒佛道 融合의 영향을 받아 ‘平淡’을 지향하면서 시를 짓는 데에 있어서도 겉으로는 평이한 詩語

53) 같은 책, 第6册, 6111쪽, 《清邃閣論詩》. “陶淵明詩人皆說是平淡.” 같은 책, 6113쪽. “詩須是平易不費力.”

54) 黎靖德 編, 《朱子語類》卷1, 中華書局, 2018, 145쪽. “新巧者易作, 要平淡便難, 然須還他新巧, 然後造於平淡.”

55) 吳文治, 앞의 책, 第6册, 6115쪽, 《清邃閣論詩》. “或謂梅聖俞長於詩, ……他不是平淡, 乃是枯槁.”

사용으로 담박하게 보이지만 내면에는 지극한 맛을 지닌 풍격, 또는 경지를 추구했다. 실제 창작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平淡’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 宋代의 사람들은 作詩에서 艷麗함을 반대하지만 단순한 素朴이나 平易함만으로는 되지 않으며, 人爲的인 추구도 안 된다고 여겼다. ‘平淡’한 시의 鑑賞에 대해서는 시간을 들여 천천히 오래 읽고 깊이 생각할 것을 제기했다. ‘平淡’의 審美的 理想 및 대표 詩人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平淡’과 ‘至味’의 特色을 인식하면서 陶淵明을 추앙했으며, 黃庭堅은 杜甫를 들었다. 平淡論은 時代性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띠는데, 詩學에서 본격적으로 ‘平淡’을 논하기 시작한 것은 前代의 기초 위에서 宋代에 들어 더욱 盛行했다는 점, 宋代의 사상적 문화적 배경의 영향이 지대했다는 점, 그리고 詩壇의 弊端을 바로잡으려는 의식에서 ‘平淡’을 제기하고 중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위에서 든 여러 사항 중, 송대 사람들이 ‘平淡’을 논하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거론한 주요 내용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즉 ① ‘平淡’과 ‘雕琢’의 문제, ② ‘平淡’과 ‘情趣’, ‘味’의 문제, ③ ‘平淡’과 ‘自然’의 문제이다.

### 1. ‘平淡’과 雕琢

‘平淡’의 ‘平’은 일반적으로 특별함이 없는 평범함을 의미한다. 그러면 宋代의 시인들이 ‘平淡’을 이상적인 경지요 풍격이라 생각할 때 실제 作詩에서 그냥 평범한 글자만 골라 나열하면 ‘平淡’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葛立方은 당시 사람들이 拙劣하고 平易한 말을 많이들 짓고는 스스로 ‘平淡’하다고 여기는 것을 옳지 않다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蘇軾이 이미 〈與二郎姪〉에서 ‘점차 늙어가면서 점차 성숙해지면 平淡에 이르게 되는데 사실은 平淡한 것이 아니라 絢爛함의 극치이다.’라고 하였으며, 吳可가 “먼저 화려했다가 뒤에는 평담해진다.(先華麗而後平淡)”<sup>56</sup>라고 말한 것도 그 의미하는 바가 같다. 그러므로 宋代의 사람들은 ‘平淡’

을 주장하지만 形式이나 技巧, 修辭 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精練을 거쳐 質樸한 ‘平淡’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다. 魏泰는 《臨漢隱居詩話》에서 “매요신 또한 시를 잘 지었는데 비록 뛰어난 情趣는 모자라지만 平淡하면서 工巧로움이 있다.(梅堯臣亦善詩, 雖乏高致, 而平淡有工)”<sup>57)</sup>고 하였는데 이 역시 매요신이 作詩에서 詩句를 다듬는 노력을 기울임을 보여주는 예이다. 黃庭堅이 〈與王觀復書〉에서 杜甫가 夔州에 간 이후의 시를 평하면서 句法은 簡易하나 大巧가 나왔으며 平淡하지만 산 높고 물 깊은 경지를 보였다고 극찬한 것도 걸은 平淡하지만 속에 大巧를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sup>58)</sup>

이러한 견해들은 결국 송대 사람들이 ‘平淡’이란 雕琢의 수련 과정을 통해 화려함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르는 경지라고 보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 2. ‘平淡’과 ‘情趣’·‘味’

‘平淡’의 ‘淡’은 ‘싱겁다’ ‘담박하다’의 의미이다. 그렇지만 시를 지을 때 생각나는 대로 平易한 말을 나열하면 ‘平淡’한 풍격의 훌륭한 시라는 평을 받을 수 있을까? 宋代의 사람들은 시에는 深遠한 情趣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 보았다. 宋代의 문학과 예술에 있어서 공통된 특색 중의 하나는 바로 ‘尚意’의 정신으로, 작품에서 주관적인 정감과 개성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曾紘은 “陶淵明의 詩語는 平淡하면서 寓意가 深遠하다.(陶公詩語造平淡而寓意深遠)”고 말하여 그의 시에 담긴 ‘深遠’의 특색을 지적하면서 “걸은 마른 것 같지만 속은 사실 널리 기름지다.(外若枯槁, 中實敷腴.)”고 평했다.<sup>59)</sup> 宋代에는 작품 속에 깃들여 있는 작자의 깊은 意趣

56) 같은 책, 第6冊, 鳳凰出版社, 1998, 5539쪽, 《藏海詩話》.

57) 何文煥, 앞의 책, 上, 中華書局, 2001, 327쪽.

58) 吳文治, 앞의 책, 第2冊, 943쪽. “但觀杜子美到夔州後古律詩, 使得句法簡易而大巧出焉. 平淡而山水高深, 似欲不可企及.”

59) 陶澍 注, 《陶靖節全集注》, 世界書局, 1974, 67쪽.

나 情趣를 ‘味’라는 말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楊萬里가 “五言古詩로 詩句가 淡雅하면서 맛이 매우 깊은 사람은 陶淵明과 柳宗元이다.(五言古詩, 句雅淡而味深長者, 陶淵明、柳子厚也.)”<sup>60)</sup>라고 말하였다. 范溫은 書, 畫, 文章의 최고 境界를 ‘韻’으로 보고 매우 중시하였는데, 문장을 논하면서 “簡易하고 閑澹한 가운데서 지어, 深遠하고 無窮한 맛이 있게 하여야 한다.(行於簡易閑澹之中, 而有深遠無窮之味.)”고 하면서 이렇게 하여야 살필수록 더욱 깊어진다고 하여 ‘平淡’과 ‘深遠無窮之味’의 유기적인 결합을 주장하였다.<sup>61)</sup>

그런데 ‘平淡’한 시는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고 表面的으로 淡淡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 맛이 쉽게 파악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朱熹는 “다시 평이하고 착실한 곳에서 깊이 吟味하여, 모름지기 맛이 없는 가운데서 맛을 얻어야, 비로소 餘韻의 맛이 있음을 알게 된다.(更向平易著實處子細玩索, 須於無味中得味, 乃知有餘味之味耳.)”<sup>62)</sup>라고 하여 글을 자세히 吟味하면서 ‘無味’ 중에서 ‘味’를 얻어 결국 ‘餘味之味’를 맛볼 것을 주장하였다. 송대 사람들이 ‘味’를 創作 뿐만 아니라 鑑賞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시켜 주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平淡’과 ‘自然’

宋代의 사람들은 平易한 말을 사용하지만 雕琢을 전혀 거부하거나 또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시에 深遠한 情趣, 또는 맛을 담고자 하였는데, 그러면 이러한 창작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고 유념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일까? 宋代의 사람들은 그것을 ‘自然’이라고 생각하고 ‘平淡’과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宋代에는 많은 시인과 비평가들이 시가 창작에서 ‘自然’을 최고의 경지

60) 吳文治, 앞의 책, 第6冊, 5938쪽, 《誠齋詩話》.

61) 같은 책, 第2冊, 51260쪽, 《潛溪詩眼》.

62) 朱熹, 《朱文公文集》 卷39, 臺灣商務印書館, 641쪽, 〈答許順之〉.

로 삼으면서 ‘自然論’이 성행하였다. 蘇軾은 가슴 속에서 복받치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을 바로 詩의 형식을 빌려 나타내게 된다고 보았고, 葉夢得은 훌륭한 詩란 인위적으로 생각을 짜내거나 말을 어렵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sup>63)</sup> 葛立方은 ‘平淡’과 ‘自然’의 관계에 주목하여 李白이 시에서 제시한 ‘맑은 물에서 피어나는 연꽃’을 예로 들며 作詩에서 ‘平淡’하면서 自然스러워야 훌륭하다고 말하였다.<sup>64)</sup>

嚴羽는 謝靈運이 陶淵明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謝靈運의 시가 精巧하지만 陶淵明의 시는 質樸하면서 自然스러울 따름이다.”고 보았다.<sup>65)</sup>

朱熹는 陶淵明의 시를 높이 평가하였는데, 도연명의 시의 수준이 높은 것은 그가 超然히 自得하면서 억지로 詩意의 安排를 하지 않는 데에 있다고 보았다.<sup>66)</sup>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平淡’만 배우려고 하여 陶淵明 시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sup>67)</sup>

송대의 사람들은 대체로 모두 ‘平淡’과 ‘自然’의 결합을 최고의 境界로 여겼다.

#### IV. 나가는 말

平淡論은 宋代의 詩論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이다. 그러면 宋代에 들어 平淡論이 어찌서 그렇게 성행하였는가? 궁금함이

63) 李致洙, 〈宋代 詩學에서 自然論의 전개와 특색 연구〉, 《中國語文學》 第79輯, 2018, 198-199쪽, 201쪽 참조.

64) 앞의 17쪽 참고.

65) 何文煥, 앞의 책, 上, 696쪽, 《滄浪詩話·詩評》. “謝所以不及陶者, 康樂之詩精工, 淵明之詩質而自然耳.”

66) 朱熹, 《朱文公文集》 卷58, 臺灣商務印書館, 1039쪽. 〈答謝成之〉. “淵明所以爲高, 正在其超然自得, 不費安排處.”

67) 吳文治, 앞의 책, 第6冊, 6115쪽. 《清邃閣論詩》. “淵明詩平淡, 出於自然, 後人學他平淡, 便相去遠矣.”

생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宋代 이전에 ‘平淡’ 또는 관련 유사한 말이 거론된 사정을 살펴보았다. ‘淡’ 또는 ‘平淡’은 오랜 세월 동안 중국 철학 사상과 인물 품평 등에서 널리 쓰여 온 주요 개념이다. 文學에서의 平淡論은 晉과 南北朝 시기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唐代를 거쳐 宋代에 이르러 詩學에 있어서 平淡論이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宋代의 시인들은 앞 시대의 平淡論의 기초 위에서 詩學에서 ‘平淡’의 문제에 대해 더욱 전면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를 행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은 宋代의 平淡論이 이전의 논의와 다른 모습이자 특색이기도 하다. 宋代에 平淡論이 성행한 배경으로, 儒佛道の 融合과 詩學觀의 변화, 詩壇의 弊端 혁신과 ‘平淡’ 추구, 그리고 詩歌의 理想的 境界 追求와 陶淵明 推仰 등을 들 수 있다.

宋代의 平淡論에서 비교적 주목을 끄는 견해를 피력한 사람으로는 北宋의 胡宿, 梅堯臣, 歐陽修, 蘇軾, 黃庭堅, 그리고 南宋의 葛立方, 朱熹 등이 있다. 宋代 平淡論의 주요 내용은 ‘平淡’의 성격과 특징, ‘平淡’의 창작, ‘平淡’의 감상, ‘平淡’의 審美的 理想과 대표 詩人, 平淡論의 時代性 등이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宋代의 平淡論은 이전의 그 어느 시기보다도 비교적 全面的이고 體系的이고 細密化된 특색을 보임을 알 수 있다.

宋代의 平淡論은 ‘平淡’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平淡’과 ‘雕琢’, ‘情趣와 味’, ‘自然’ 사이의 관계에 특히 주목했다. ‘平淡’을 주장하지만 形式이나 技巧, 修辭 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平易한 말 속에 深遠한 맛이 담겨 있어야 하며, 억지로 의도적으로 시를 짓는 것을 반대하면서, ‘平淡’과 ‘雕琢’, ‘平淡’과 ‘情趣와 味’, ‘平淡’과 ‘自然’ 등의 문제를 적절하고 조화롭게 처리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송대 사람들이 ‘平淡’을 논하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거론한 주요 내용으로, 송대 이전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전반적으로 깊이 다룬 언급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宋代의 시인들은 이론상으로만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창작에서도 반영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보았듯이, 歐陽修와 梅堯臣, 蘇舜欽 등에 의하여 晚唐五代의 시풍과 西崑體 末流를 대상으로 하는 詩歌

改革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梅堯臣은 ‘平淡’을 통하여 浮艷한 시풍을 바로잡고자 하였고 詩歌 創作에서도 이런 생각을 실천하고자 하였으며(12쪽), 歐陽修와 魏泰는 梅堯臣의 시를 각기 ‘古淡’, ‘閑淡’, 그리고 ‘平淡’하다고 평한 바 있다.(13쪽, 19-20쪽) 그 외에도, 胡仔는 《苕溪漁隱叢話》에서 梅堯臣의 시는 ‘平淡’에 뛰어나 스스로 一家를 이루었다고 높이 평하면서 “人家는 어디에 있나, 구름 밖 한 가닥 닭 울음소리.(人家在何許, 雲外一聲鷄.)”(《魯山山行》) 등의 구절을 예로 들었다.<sup>68)</sup> 그리고 黃庭堅 또한 紹聖 元年을 기점으로 해서 볼 적에 전기에는 시를 지을 적에 새롭고 기묘한 것을 추구하였지만 후기에 들면서 ‘平淡’을 더 주목하고 이를 추구하였다.(16쪽) 蘇軾의 경우 역시 烏臺詩案에 연루되어 黃州에 貶謫을 간 이후 생활과 사상의 변화가 시가 창작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平淡한 藝術 風格을 탐색하기 시작했다.<sup>69)</sup> 그리고 남송의 대표 시인 陸游 역시 중년의 豪壯한 시에서 만년에는 전원의 삶을 노래하는 ‘平淡’으로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하여, 唐詩와 대비되는 宋詩의 특징으로 ‘詩의 平淡化’를 들고 梅堯臣이 強調한 ‘平淡’은 結局 宋詩의 全體的인 特徵으로 發展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게 된다.<sup>70)</sup>

平淡論의 역사는 대체로 先秦에서 魏晉까지가 萌芽期이고, 南北朝와 唐代는 形成期이며, 宋代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發展期, 또는 成熟期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宋代 여러 사람들이 제기한 平淡論은 金代를 비롯하여 宋代 이후 元代, 明代, 清代의 詩學論에 영향을 미쳐 ‘平淡’ 문제에 관심과 논의가 계속되었다.

68) 같은 책, 第4册, 4125쪽, 《苕溪漁隱叢話》 後集 卷24. “聖俞詩工於平淡, 自成一派, ……山行云: ‘人家在何許, 雲外一聲鷄.’”

69) 謝桃坊, 《蘇軾詩研究》, 巴蜀書社, 1997, 92쪽.

70) 金學主, 《中國文學概論》, 新雅社, 1988, 93-94쪽.

< 참고문헌 >

- 權鎬鐘, 〈中國古典詩歌에서 「平淡」의 意味解釋〉, 《中國文學》 第24輯, 1995.
- 문명숙, 〈송시 평담 특징에 관한 고찰〉, 《中國學報》 第50輯, 2004.
- 李致洙, 〈宋代 詩味論의 배경과 特色 연구〉, 《中國語文學》 第55輯, 2010.
- 李致洙, 〈宋代 詩學에서 工拙論의 展開와 宋代 文化的 特性 研究〉, 《中國語文學》 第62輯, 2013.
- 李致洙, 〈宋代 詩學에서 自然論의 전개와 特色 연구〉, 《中國語文學》 第79집, 2018.
- 최웅혁, 〈宋人 詩話의 陶淵明과 그의 詩에 관한 評語 研究〉, 《中國學研究》 第57輯, 2011.
- 段莉萍, 〈论北宋诗人胡宿的“平淡”诗观〉, 《重庆三峡学院学报》 第4期, 2012.
- 顧易生、蔣凡、劉明今, 《宋金元文學批評史》, 上海古籍出版社, 1996.
- 王順娣, 《宋代诗学平淡理论研究》, 巴蜀书社, 2009.
- 吳文治, 《宋詩話全編》, 鳳凰出版社, 2006.

< Abstract >

‘Wateriness[Pingdan]’ originally was an important concept of Chinese philosophy in Pre-Qin period, and in the Jin Dynasty and the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The theory of Wateriness[Pingdan]’ began to enter the field of literature. In the Song dynasty, ‘The theory of Pingdan’ became the main problem of poetry’s creation, criticism and appreciatio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discussion of Pingdan in the Song Dynasty, including the view of Hu Su, Mei Yaochen, Ouyang Xiu, Su Shi, Huang Tingjian in Northern Song Dynasty, and Ge Lifang, Zhu Xi in Southern Song Dynasty. Discussion of Pingdan in Song Dynasty emphasized the 'Pingdan', and paid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ingdan and refinement, sentiment and taste, and the nature at the same time. The discussion of Pingdan became the most representative and key content of Poetics in Song Dynasty.

Key Words : 宋代(Song Dynasty), 詩學(Poetics), 平淡論(the theory of Wateriness[Pingdan]), 胡宿(Hu Su), 梅堯臣(Mei Yaochen), 歐陽修(Ouyang Xiu), 蘇軾(Su Shi), 黃庭堅(Huang Tingjian), 葛立方(Ge Lifang), 朱熹(Zhu Xi)